"편안한 설 연휴 보내세요"

무주군, 종합대책 추진 만전 …2월 2일~6일까지 종합상황실운영

무주군은 분야별 설 연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민생경제 · 주민생활안정(물가관리, 전통시장 장보기 등), △안전강화(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및 조치 등), △귀성객 · 주민불편 최소화(교통편의 도모, 생활민원 처리 등), △소외계층과 함께 하는 명절나기(1마을 1담당 등 위문 · 봉사활동 등),

△공직근무기강 확립(근무 철저 등), △비상진료체계 구축(비상진료대책 상황실 설치 운영 등), △설 명절 전 · 후 국토대청결운동 추진(터미널, 마을 진입로 등 청소), △AI · 구제역 방역 강화(상황실 운영 등), △검소한 설 명절보내기 등에 주력할 방침으로, 각 부서별 세부활동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월 2일부터(~6일)는 물가 · 교통, 재난 · 재해, 쓰레기, 상 · 하수도, 의료, AI · 구제역 상황관리, 읍 · 면 상황반(생활민원)으로 꾸린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현장상황에 대응해갈 계획이다.

무주군청 자치행정과 주홍규 과장은 "주민은 물론, 고향을 찾은 귀향객들이 기분 좋은 연휴를 보내실 수 있도록 연휴가 시작되는 2일부터 6일까지 하루 31명이 대비와 대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은 지난 31일 제설 송풍기로 신속하게 이면도로의 눈을 치웠다.

제설 송풍기로 마을안길까지 깨끗하게

무주군, 친환경 제설 '눈길'

지난 31일 새벽 대설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전북지역에 많은 눈이 내린 가운데 무주군이 친환경 제설로 눈길을 끌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 1월 중순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해 제설 송풍기 31대를 구입했으며 제설 삽날을 장착한 트럭이 들어갈 수 있는 소규모 마을들에 우선 지급했다.

무주읍 다양마을 주민들은 "눈이 내리면 보통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마을의 안길이나 보도 위에 쌓인 눈을 쓸어내는데 오늘처럼 눈이 많이 내리게 되면 치우는 게 더디기도 하지만 제대로 치우기는 더 힘들다"라며

"송풍기를 이용하니까 치우는 것도 빠르지만 무엇보다 깨끗하게 치워져 연세 드신 어르신들의 낙상걱정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전했다.

한편, 무주군에는 지난 31일 오전 10시 기준 6개 읍면 평균 6.1㎝(최고 구천동 9㎝)의 눈이 내렸으며, 군에서는 관내 주요 간선도로 9개 노선(위임국도 1, 지방도 4, 군도 3, 무주읍 시내 권)에 대한 신속한 제설로 안전을 우선 확보했다.

무주군은 이날 덤프와 굴삭기 등 제설차량 9대와 소금 50톤을 투입한 것을 비롯해 도로보수원과 운전원 등 26명으로 작업조를 편성해 새벽 4시 30분부터 제설작업을 진행했다. 각 읍·면에서도 자체 인력과 장비를 이용해 시가지권과 이면도로의 눈을 치웠다.

무주군청 안전재난과 조영자 재난방재팀장은 "한발 앞선 재난대비와 현장 밀착형 재난관리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라며 "자동차들이 다니는 큰 도로부터 차가 들어가지 않는 마을 안길들까지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안전한 겨울을 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메아리

장수군, 2019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점검 보고회 개최

장수군은 지난 31일 2019년 상반기 어려운 고용상황 및 경제 불안요인 등 정부의 서민생활안정 기조에 동참하기 위해 '2019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점검 보고회'을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신달호 부군수와 실·과·소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속집행 대상사업(743개)의 월별집행계획과 집행실적 제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장수군은 신속집행 목표액을 1397억원(대상액의 60%)으로 설정하고 달성을 위해 오는 6월까지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신속집행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 폐자원 에너지화시설 본격

진안군은 지난 31일 폐자원 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BTO-a, Build Transfer Operate-adjusted) 협상대상자로 (가칭)진안바이오에너지(주)(주간사 : 환경시설관리(주))가 선정됨에 따라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폐자원 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은 유기성 폐기물로 바이오가스(재생에너지)를 생산·판매하고 자원순환형 기반기설을 구축,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향상에 기여하면서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시설은 진안읍 전진로 3183-99 일원에 기존시설 개량과 함께 반입 및 전처리설비, 혐기성 소화설비, 바이오가스 생산설비, 폐수 및 슬러지 처리시설, 여과 및 소독시설, 악취 방지설비 등을 갖추게 된다.

총 사업비는 358억원에 달한다. 앞서 진안군은 2016년 12월 최초제안서를 환경시설관리(주)로부터 제출받아 PIMAC(KDI, 공공투자관리센터)를 통해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및 적격성 검토를 거쳤으며 지난해 12월 제3자 제안공고를 게재했다.

진안군은 1단계 참가자격사전심사(PQ)와 2단계 기술 및 가격평가를 통과한 (가칭)진안바이오에너지(주)와 본격적인 협상을 거쳐 올해 말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20년 1월 착공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한국조폐공사, 지역상품권 활성화 업무협약

진안고원행복상품권 4월중 발행 예정,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진안군은 지난 31일 지역상권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국조폐공사와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널 진안군청 상황실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이항로 군수와 황문규 한국조폐공사 기술해외이사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조폐공사는 협약에 따라 행복상품권 신뢰성 제고를 위한 서비스 개선과 군민, 골목상권 편익을 위한 체계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진안군의 다양한 요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진안군은 올해 1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계획이다.

2월중 가맹점을 모집하고 관내 금융기관 등 판매 대행점과 도 업무협약을 체결해 이르면 4월 중 지역화폐가 발행된다.

지역화폐는 5000원권과 1만원권 2종류의 지류상품권으로 진안고원행복상품권의 1인당 구매한도는 월간 50만원, 연간 500만원이며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다.

상품권 구매 시 10% 할인이나 인센티브 제공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공무원 복지포인트 및 각종 정책 장려금, 시상금(포상금) 등을 지역화폐로 대체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해 12월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를 제정했으며, 군민을 대상으로 지역상품권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바 있다.

이항로 군수는 "대한민국 지역화폐 발행 3,000억원 시대에 발맞춰 진안고원행복상품권 발행으로 관내 상권 활성화와 지역 내 소비 증가는 물론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2019 가구주택기초조사 3차 시험조사' 실시

무주군이 2019 가구주택기초조사 제3차 시험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현장 확인을 통한 행정자료의 품질개선과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대책 수립을 위한 준주택(기숙사, 다중생활시설, 오피스텔 등) 통계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무주군은 오는 9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할 계획으로 대상 가구는 무주읍, 안성면, 설천면 등 3개 읍·면에 거주하는 8,812가구다.

내 · 외국인이 사는 주택과 가구, 가구원 전체를 조사하게 되며 조사항목은 주소와 조사구분, 조사대상 여부, 거처종류를 비롯해 빈집(여부, 기간, 사유, 파손정도), 거주가능 가구수, 건축년도, 건물 층(옥탑 여부), 농림어가(農林漁家)여부, 총 방수, 난방시설, 주거시설 등 총 12개다.

조사 형태는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는 면접조사와 태블릿을 이용한 전자조사 로 총 12명이 조사와 관리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콜 센터(080-200-2019) 상담원을 통한 전화조사도 진행된다. 무주군은 지난달 30일과 3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조사원 및 조사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도 실시했다.

무주군청 기획실 이자영 예산팀장은 "대전 서구와 함께 무주가구주택 기초조사 3차 시험조사 지역으로 선정된 만큼 2020 인구주택 총조사와 농림어업 총조사를 위해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며 "조사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이 되는 만큼 조사원 방문 시 조사원증을 꼭 확인하고 적극 응해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홍삼축제추진위원회 1차 총회 열어…10월 9일~13일 개최

진안군은 전라북도 우수축제인 진안홍삼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지난 30일 진안홍삼축제추진위원회 1차 총회를 열었다.

이번 총회에서는 지난 한 달간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 접수된 기관사회단체장과 축제 및 홍삼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35명의 축제위원들을 위촉했다. 올해는 수삼 재배농가와 홍삼분야 위원 확대로 홍삼축제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했다.

2019 진안홍삼축제를 이끌 임원진 조직 구성, 2019 진안홍삼축제의 기본계획 승인 등이 진행됐다. 올해 총회에서 선출된 유경종, 이재명 위원장을 비롯한 축제위원회에서는 전라북도 최우수축제 지정과 문화관광축제로의 진입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이기로 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뜬봉샘생태공원' 환경부 생물자원보전시설 등록

장수군 뜬봉샘생태공원이 환경부 지정 생물자원보전시설로 등록됐다.

지난 31일 장수군에 따르면 군은 뜬봉샘의 우수 생태와 각종 생물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환경부 국고를 지원받아 지난 2016년 뜬봉샘생태공원 내 생물자원보전시설을 조성했다.

현재 뜬봉샘생태공원 생물자원보전시설에 등록된 생물종은 살아있는 생물자원 62종 835개체, 표본 생물자원 139종 244개체로 이 중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남생이, 수리부엉이, 노란목도리담비, 삵, 수달, 하늘다람쥐, 붉은배새매, 세뿔투구꽃 등이 포함돼 있다.

군은 생물자원보전시설 조성 후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본격적인 생물자원보전시설 운영을 위한 체재를 마련하고, 시설 및 인력 요건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장수군의 생물다양성을 확보한 결과 지난 18일 환경부의 시설 점검을 거쳐 생문자원보전시설로 최종 등록 확정됐다.

장영수 군수는 "이번 뜬봉샘 생물자원보전시설 등록에 따라 뜬봉샘생태공원이 생물자원 전문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고 금강의 발원지인 '뜬봉샘'의 생태를 보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생물자원보전시설은 전국에 20개소가 지정·관리되고 있다.

/장수=고판호 기자